

영어도서관 마케팅과 도서관 주도 독서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glish Library Marketing and Reading Programs

오경목(Kyung-Mook Oh)**

초 록

한국사회와 도서관계에 변화의 가속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는 도서관경영을 보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성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요를 창출하는 경영기법을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수요가 확산될 서비스나 프로그램 중 하나가 영어독서와 영어도서관 설치에 대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최근 신문기사를 통해 개인, 기관 및 사교육기관 별로 정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시된 독서방식을 국내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적용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자율독서프로그램을 국내 상황에 맞게 새롭게 분석, 전개하였다.

ABSTRACT

The ideas of user oriented service wasn't a major issue in libraries in the past decade. However, from now on, our library visitors have choices in the book selection processes, and the library may not be the first choice for their information demands. Competitors such as museum, culture center, and even private reading academy are those who anticipate user demands and satisfy them before the librarians do. What may have been perceived as excellent service a few years ago is not acceptable today anymore in the library. This study reveals current situation of English library collection and their practice as a sound English learning tool for Korean students. The researcher introduces library Marketing Concept and Reading Programs as an effective management tool.

키워드: 도서관마케팅, 영어도서관운영, 영어장서개발, 영어독서, 공공도서관경영
English library management, building English collection, library marketing,
English book reading

* 본 논문은 2009년 숙명여자대학교의 교비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kmoh@sookmyung.ac.kr)

■ 논문접수일자: 2009년 11월 18일 ■ 최초심사일자: 2009년 11월 20일 ■ 게재확정일자: 2009년 12월 4일
■ 정보관리학회지, 26(4): 299-317, 2009. [DOI:10.3743/KOSIM.2009.26.4.299]

1. 서론

한국사회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공도서관의 각종 서비스 영역에서 점차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라는 표현은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민간기관들의 활동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문화원,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등과 서비스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나온 변화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고객 유치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회 내에서 방과후학교의 독서관련 프로그램, 사설교육기관인 학원 같은 각종 교육기관이나, 도서 및 비디오 대여점 등이 경쟁관계가 될 수 있고, 공공서비스의 재정 지원적 관점에서 보면 문화의집,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관 등이 경쟁자로 대두될 수 있다.

앨빈 토플러가 21세기를 이끌고 가는 사업영역을 분석하면서 소개한 각 사업주체들의 '변화(업무)의 속도'는 도서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Toefler & Toefler 2006, 32-40). 즉, 일반 기업체나 사업체는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가장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나가고 있고, NGO 단체는 90마일로 기업군을 쫓아가고 있고, 25마일 속도로 관료 조직이 움직이고 있으며, 10마일로 학교가, 3마일로 정치제도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 집단과 국내 도서관계는 몇 마일로 달려야 이들 사업기관들과 보조를 맞추며 생존하여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경쟁적 환경이 확산되고 변화의 가속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는 도서관경영을 보

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력이나 예산을 '선택과 집중'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성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수요를 창출하는 경영기법을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이미 존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도구로 판매하는데 만족하는게 아니라 해당지역사회에서 현재 이용자들에게서 절실히 요구되며 앞으로 수요가 확산될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도서관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Higgins 2007, 114).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사업은 서비스지역내의 이용자 요구를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서를 구축해서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장서를 최대한 사용토록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특성화사업을 통해 도서관이 해당지역에서 이용자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신뢰감을 주고 앞으로 확보할 장서의 종류와 크기를 키워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이용자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이 적극적인 도서관지원 세력이 될 수 있도록하고, 지역 안팎에 있는 각종 도서관을 비롯하여 여러 문화기반시설 종사자들과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협동업무의 토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이소연 2004).

특히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 어린이 독서운동단체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용자 확보를 위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요구가 강한 특성화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국

의 교육적 현실에서 공공도서관이 개발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시의 적절한 독서방법을 소개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도서관을 보는 각 지역사회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일반이용자,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예산관리관련 부서의 시각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일류 기업들은 꾸준히 자사 상품을 위한 서비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소비자로서 시민들은 이러한 뛰어난 서비스를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서비스 향상을 실감하고 있다 (Siess 2003, 2-3). 병원, 구청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이러한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고 도태될 운명을 맞게 될 것을 우려해서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서비스들을 속속 소개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재 한국의 실정으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관찰되고 있는 바이다.

그동안 도서관과 사서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거나 잘못 알려져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현장의 개발 가능한 서비스와 다양한 사서의 역량을 정확히 도출해 보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공공도서관 운영활동의 주 대상으로서 학생, 학부모, 일반이용자들: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 종사자들: 그리고 현업에서 봉사 중인 도서관 직원 그리고 미래의 직원으로서 문헌정보학 분야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의 가치를 제시, 소개하여 이들에게서 더한층 도서관봉사에 대한 호감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찾아내어 제시하고자 한다.

2. 도서관 마케팅과 영어도서관 요구 현상

2.1 도서관 마케팅

공공도서관과 같은 비영리기관에서도 시민, 고객 등으로 지칭되는 이용자로서 소비자가 존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유무형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제공받으려는 주체간에 교환 행위가 이루어지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유관 시장과 경쟁이 존재하는 등 본질적으로 영리 조직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도 기관과 소비자 사이의 긴밀한 교환을 지속해나가기 위하여 고객 중심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 개념을 도입,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에는 도서관계에도 마케팅개념의 적용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주장하는 연구(Sass 2002; 오경목 노영진 2003)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비영리기관이 어제를 오늘과 같이, 내일도 오늘과 같이 인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탈피하기 위한, 특히 공적 자금의 확보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계획으로서의 전략적 경영과 그 핵심기법인 마케팅을 도입해야한다”는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더욱 공감대를 넓게 하고 있다(이소연 2004, 9).

미국마케팅협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에서 새로 정의한 개념에도 나타났듯이 “마케팅은 기업, 비영리조직 및 정부기관이 각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합치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를 기획, 개발하고

이에 관한 사실을 전달하며 각 주체자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고객만족,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처리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김소영, 주영혁 2002, 7).

또한 마케팅활동이란 어떤 것을 만들어 낸 뒤 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또 고객의 구매욕구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키도록 만드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폭넓은 과정이다. 더구나 마케팅전략과 활동은 고객시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마케트(market) 하는 방안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유능한 인재(현재 및 미래의 종사자 - 특히 도서관에서는 고품격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단위인력이 더욱 필요하다.)를 유치해야 할 필요도 있으며, 그들의 입사의욕을 자극할 만한 가치를 제안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마케팅활동의 대상이 고객이건, 투자자이건, 유능한 인재이건 관계없이 이들의 욕구와 요구를 파악해 훌륭한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호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마케팅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코틀러는 언급하고 있다(Kotler 2008, 18).

통상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마케팅의 목표가 많이 판매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경제적 논리만을 가지고 마케팅을 이해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곽수일 1996). 도서관같은 비영리 공공기관에서도 마케팅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더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을 이용자로서 도서

관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으로서 마케팅개념의 도입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업을 번창하게 만드는 것은 그 기업의 "마케팅 아이디어와 제공상품"이라고 하는데, 도서관현장에서는 아이디어를 체계화한 "운영프로그램"과 보유 콘텐츠로서의 "장서제공"으로 비유될 수 있다. 마케팅은 영리기관에서 생산한 것을 처분하는 교묘한 방안들을 찾아내는 기법이거나 판매행위가 아니고, 마케팅은 고객의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라고 한다. 따라서 마케터의 모토는 품질과 서비스, 그리고 가치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마케팅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기업이 제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기업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마케팅이 잘 이루어지면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시장에 내놓기 전부터 마케팅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또 판매가 끝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영어독서프로그램 서비스를 마케팅하기위해 여러 가지 연구관점을 분석해보고 우리 도서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있다.

2.2 영어도서관 요구 현상

이명박정부 출범부터 논쟁거리로 대두 되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추세에 있는 영어몰입 교육 환경은 도서관계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영어도서관(혹은 영어장서구축)과 영어독서 프로그램 소개가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 지역만 해도 현재 영어 장서를 확보하고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30여개 관이 넘고, 용산구청, 양천구청 등 일부 구청에서는 현재 개관을 준비 중에 있다(김희선 2009, 28-30).

처음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논쟁거리가 되었을 때 논점이 되었던 사항들은 영어몰입학습자들은 우리나라 문화보다는 서양문화를 더 선호한다거나, 몰입교육을 하다보면 우리말 습득에 방해가 된다거나, 학습자가 교과 학업 성취도가 저조하다거나, 영어양극화 현상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거나, 따로 투입할 교사가 현실적으로 없다거나 등의 문제점이 떠올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몰입의 환경 제공 격차가 사회 문제가 될 뿐,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인을 더 이상 하지는 않게 된 듯한 현실이다. 이는 영어 몰입교육이 오랫동안 증명된 효과적인 영어학습법이며 시간과 비용을 오히려 절약해주는 학습법이라는 경험과 주장 때문이다(이명신 2008; 송지은 2009; 윤진희 2008; 이신애 2008; 이현 2005).

영어몰입교육은 영어에 노출되는 양과 시간을 늘리고 영어사용의 기회를 늘려주는데 그 기본 배경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이를 실시할 환경이 안되어 도입유무의 당위성 논란 속에서, 도서관에서의 영어책읽기를 시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고 영어사용의 기회를 늘게함으로써, 해외연수를 통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다('몰입교육식독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선진국 도서관들에서 소개해온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성공사례가 보도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올바른 독서방식에 대한 관심과 시행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는 방식이기도 한 것이다(Fox 2001).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본적 언어소양을 갖기 위해 필요한 언어학적 임계량은 최소 2,000시간이며 업무수행 능력까지 갖추려면 최소 3,000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한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국내 초중고교에서 진행되는 영어수업시간은 초등교 136시간, 중학교 235시간, 고등학교 340시간으로 총 711시간인데, 주당 최대한 3시간을 해도 총수업시간은 1,000시간 정도가 되어 언어학적 임계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다른 연구에 의하면 미국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영어를 하게 되기까지만해도 최소 6,000 시간의 영어에의 노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이보영 2008, 34). 그러나 도서관 영어장서를 자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국내에서 영어환경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영어 노출 시간 연장 및 확보', '학습의 입력(input)을 위한 다양한 영어사용 사례 제시'가 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교육 현장인 학교교육 상에서의 준비 미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영어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영어도서 노출환경 확보 등으로 대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 영어교육 환경(English as Second Language)에서는 교실 안팎에서 영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굳이 도서를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영어독서에 매달리는 것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세리 리 2009, 61-63).

이미 눈치 빠른 사교육시장에서는(3장에서 집중적으로 사례를 소개 분석함) 국내 실정에 맞추어 영어도서관 시설을 설치하여 학원 프로그램의 중요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빈약한 국내 영어학습 환경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어장서

를 확보하고 독서프로그램을 학원프로그램의 중요한 학습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영어습득의 우선적 비결이 원서읽기라고 권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동화, 소설부터 시작해서 각종 주제와 관련된 원서를 읽으며 영어에 충분히 노출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학원가로 유명한 지역의 학원도서관에서는 이미 각종 아동문학 작품, 유명영어소설 등 관심과 흥미에 따라 영어장서를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의 경우 픽션, 논픽션의 비율을 조절해가며 2학년부턴 6학년까지 일주일에 평균 2-3책씩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읽어나가며 독서량을 추적해나가고 있는데 추적량만큼 학습효과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에서 영어장서를 확보한 다음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수준별로 가이드를 제공하면 충분히 가능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지역사회에 훌륭한 마케팅 도구로써, 이러한 특성화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회사를 변창하게 만드는 것이 그 기업의 마케팅아이디어와 제공상품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체계화한 '운영프로그램'과 보유콘텐츠로서의 '장서제공'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상품의 고객인 이용자들의 요구와 수요를 시기에 맞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인식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기본 업무가 된다. 다음 3장에서는 고객의 영어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요구, 그리고 유사 사업자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 상황을 대중매체인 언론지 등을 통해 널리 공개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석 정리하였다.

3. 국내 영어독서 활동 및 영어도서관 관련 사례 소개

영어책 읽기 방식이 최근에 폭발적 관심을 갖고 각종 언론 매체에서 관련 독서법과 저자 물들이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의 NGO영역이거나 사교육영역이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갖기보다 앞으로는 공공서비스 영역인 도서관계가 주축이 되어 각종 사례조사 및 관련분야 활동 평가의 기준을 제시해야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도서관 사업에 대한 각종 후원 및 지지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분야의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영어독서와 영어도서관 설치에 대한 관심사와 현상을 언론 매체에 나타난 기사를 심층분석(Contents Analysis)하였다.

첫 번째로 언론매체에 나타난 기사는 주로 지난 2년간에 걸쳐 일간지상에 보도된 관련기사에서 학생, 학부모, 강사들의 의견을 수집, 분류하였는데, 신문지상에 나타난 기사의 제목과 날짜 그리고 기사 내용 중 특이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영어독서 및 영어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효과와 체험이 기사화되었고, 효과적인 영어학습 모델이 공적, 사적 영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소개한 사례와 같이 경험을 통해 영어도서관의 효과를 이해한 이용자들의 요구와 이를 수용하여 특화프로그램으로 영어장서를 소개한 각종지방자치단체 등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분석·소개하였다. 세 번째는 이용자들의 선호경향과 교육효과를 빨리 간파하여 학원가 등 각종 사교육 시장영

역에서 영어장서를 활용하고 있는 최근 경향과 추세를 기사와 광고 등을 종합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3.1 언론 매체에 나타난 영어독서 기사 분석: 개인의 경험 및 활동

#1. “독서력 길러야 실력 향상, 시험 점수 너무 연연말길”(중앙일보 2009년 5월 18 일자, 이하 090518로 표기함)

- 2년 이상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원어민 강사(미국인 2, 캐나다인 1명)들의 경험담 소개.
- 이들 강사들은 신문 인터뷰를 통해 한국 학생들이 가진 영어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어 실력은 ‘독서’에서 나오며, 흥미 있는 분야를 찾아 자유롭게 독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읽은 내용을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고 이를 표현해보는 토론식 공부 가장 효과적이라고 소개함. 성적 지상주의를 벗어나야 영어실력도(독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는 것을 강조함.

#2. “영어듣기, 독해력 키우려면? 독서가 중요해요”(중앙일보 090622 일자)

- 한국외대부속용인외고 학생의 학부모 경험담 소개.
- 외고입시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지난해 입시를 치른 경험담 이야기로서 듣기, 독해 실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영어독서가 중요하다는 기사 소개. 영어 독서를 통해 배경지식이 풍부하면 지문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빠르다고 강조함.

#3. “아이를 키운 건 독서, 믿음, 자극: 국제중학교에 자녀 입학시킨 엄마들의 교육법: 외국서 공부시킨적 전혀 없지요”(매일경제 090424 일자)

- 자녀를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킨 3명의 엄마의 자녀 교육 경험담.
- 국제중학교에 보낸 이후 소감과 교육 노하우 소개: 영어책 독서 강조, 어릴 적부터 해외환경처럼 조성(영어책, 영어비디오)해 주고, 책을 많이 읽어 주는게 영어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개.

#4. “슬로푸드 먹어야 오래 살아, 패스트푸드 영어 교육 안돼”(머니투데이 090501 일자)

- 독서와 같이 꾸준한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소개: 박남식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총장과의 인터뷰 기사.
- 중요한 것은(독서) 환경과 동기를 제대로 부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하고,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비만과 당뇨에 걸리고, 슬로푸드를 먹으면 오래 살듯이, 영어교육도 패스트푸드를 계속 먹이려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소개.

#5. 美 주류사회 ‘코리안 女風’ 매섭다: 미국에서 성공한 여성소개(중앙일보 090202 일자)

- 동네 도서관 통해 책을 많이 읽게 해 줌이 중요하다고 강조: 석지영(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어머니 인터뷰 기사: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 이민이후 독서 생활 강조.
- 독서가 성공 인생의 기반임을 강조.

#6. 영어독서 첫걸음: 단어도 그림처럼 보게 하라(조선닷컴, 080331 일자)

- 영어 교육 전문가 5인의 영어책 독서 방법 소개 기사.
- 영어독서법, 독서지도(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 중학생으로 연령을 나눠 그 시기에 유용한 책과 DVD, 저널을 짚어봄). 초등학교 1~3학년: 부담을 주지 말 것,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며 문장 역시 그림처럼 보여줌, 테이프나 DVD를 먼저 들려준 후 책을 읽으면 더 효과적. 초등학교 4~6학년: 그림 동화책 이후에 챗터북을 소리 내어 크게 읽음. 중학생: 여러 분야의 책을 자연스럽게 읽고 이해, 창작물과 고전을 넘나들며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접하도록 함.

#7. 탄탄한 영어 실력 '리딩'에 답 있다(조선닷컴 080331 일자)

- 영어실력 향상에 영어책 독서가 효과적이라고 소개함(어학원, 학부모 등 경험 소개).
- 숭실대학교 리딩타운어학원 R&D 팀장: 외국인인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 영어책을 많이 접할수록 언어능력이 향상. 발달 1,000권 읽기 프로젝트, 읽기 교육에 대한 욕구 증가로 영어학원에서 도서관이 필수 인테리어가 되었다고 소개: 이명신 영어동화교육원 원장: 영어그림책 읽기 운동, 기초부터 문법, 문장구조, 철자법 등을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익히고 이를 통해 사고가 넓어지고, 말하기 쓰기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는 것이 바로 책이라고 강조: 주부 이정희씨: 독서가 장

기적인 영어공부 전략을 세우는 기초가 된다고 소개. 연세대 사회교육원이 운영하는 영어독서지도 전문인 과정은 인터넷 접수신청이 30초도 채 안 돼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반영함.

#8. "줄거리, 캐릭터 분석한 '독서 독서노트' 덕 봤죠"(중앙 080709 일자)

- 제7회 국제영어논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외고 여학생의 경험담 소개.
- "영어책 많이 읽고 영어 신문 꼬박꼬박 봐요. 틈나면 그 내용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고요." 줄거리 정리는 기본, 캐릭터 분석과 여러 가지 의미나 문제, 관계에 관한 자기 생각을 적는 식의 학습 경험담 소개. 매주 토요일 영어교육 봉사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 근처 공공도서관에서 초등생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고 문법을 가르침.

#9. SAT만점 받는 비결? 판타지 소설 독서로 고급 어휘 실력 키웠죠(중앙 081225 일자)

- 2008년 10월 SAT 시험에서 만점, 대원외고 3학년생 사례 소개.
-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독서와 시청각 학습의 힘으로 고득점 가능성을 강조. 좋아했던 첫 번째 활동은 독서, 미국 작가 판타지 시리즈를 반복해 읽고, 고전 작품보다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현대 베스트셀러를 선택. 토론 준비를 위해 꾸준히 책과 신문을 읽으면서 배경지식을 쌓은 것이 실력의 비결이라고 밝힘.

#10. “다중언어 수업 받은 아이 더 똑똑”

(YTN 090818 일자)

- 일부과목을 프랑스로 진행하는 네덜란드어권 지역 학생 대상, 최근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 연구팀 연구 결과를 소개.
- 뇌를 단층 촬영한 결과: 다중언어로 수업을 듣는 어린이가 모국어만으로 교육 받는 동년배 어린이보다 명석하다고 밝힘. 독서도 영어 원본과 한글판을 함께 읽어주면 효과적이라고 함. 언어 구사력은 물론이고 연산력, 기억력에서도 모국어로만 수업 듣는 어린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임.

이상과 같이 영어독서와 관련한 개인의 경험과 활동에 관한 생생한 상황 정보가 신문 기사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현재 영어독서에 대한 안내는 주로 사교육 집단인 어학원에서 선포하는 것으로 보도 기사를 통해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에서 미처 개발하지 못했던 영어장서를 이용한 독서 방법론이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기관에서의 최근 활동 소개

#1. 시, 군, 구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확충 고려: 대통령직 인수위(한국경제 080130일자)

-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영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키로 함.
- 영어도서관, 영어전용교실, 영어체험센터 구축 지원계획을 발표. 방송과 인터넷 등을 활용한 무료 영어학습의 질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함.

#2. 서초구 “영어특별구로 거듭납니다” (머니투데이 070904 일자)

- 서울 서초구 전체 주민의 30%이상에 해당하는 10만 여명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통용 특별구’를 5년 내 조성할 계획.
- 2009년말까지 관내 서초, 반포, 방배, 양재 등 4개 권역별로 ‘영어몰입 복합센터(English Premier Center)’가 들어섬. 핵심시설로 국제수준을 지향하는 도서관에는 2만여권의 영어도서 비치, 영어독서역량지수(Lexile) 프로그램에 따라 영어 독서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고 함.

#3. 영어도서관 갖춘 어린이 복합센터로...빈 동사무소 화려한 변신(쿠기뉴스 090127일자)

- 서울 도화동 자치회관에 마련된 어린이 영어도서관, 마포 어린이 영어 도서관.
- 영어도서 열람, 대출이 가능하고 원어민, 한국인 연구원, 영어전문 사서 등이 영어 학습을 도와줌.

#4. 초등 영어 그림책 읽기: 교과 연계 외국어 프로그램(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20080503)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 단원별 영어 그림책을 선정하고 초등학생 1~2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초등 영어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 운영 활동 소개.
- 2회에 걸쳐 영어 스토리텔링 전문 강사가 진행, ‘함께 보면 좋은 책’ 도서목록도 제공.

영어를 위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외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 얻음,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과 자녀 영어교육에 참고자료로 활용.

#5. 광주교육청, ‘어린이 영어전용 도서관’ 설치(무등일보 090914)

- 광주교육학생문화회관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교육청 산하로 최초 영어도서관 개관.
- 440여㎡ 규모로 자료구입과 시설 등에 7억 원 투입, 발표 무대나 영어 드라마 감상공간 운영, 수준과 주제, 형태 등에 맞춘 각종 영어책과 백과사전, 영상자료 등 9천 여 점이 비치. 영어놀이터로 발전시키고자 함.

#6. 부산교육청 부산영어도서관 설치(조선일보 091022)

- 부산시 교육청 영어친화환경 조성사업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영어전용도서관’ 개관.
- 공공도서관을 통한 영어노출기회 확대, 학교의 영어 공교육 지원 측면에서 시행. 영어장서 22,169책, DVD, CD 등 교구 733 점등을 구비하여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무료로 운영.

#7. 영어도서관설치: 구의회 소식(090325, 용산구청 390호)

- 제163회 용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권 모 의원이 사회복지관 헬스장 폐지하고 도서관 설치 건의.
- 헬스장 이용주민 감소로 인하여 어린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교육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는 어린이 영어도서관과 방과 후 학습실, 자원봉사자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 중이라는 기사 보도.

#8. 양천구 영어독서프로그램 소개(아시아경제, 091019; 중앙일보 091119)

- 신정3동 주민센터 도서관에서 독서 능력 향상과 영어독서 기회 제공위해 개설.
- 준비된 영어 기본장서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과 학생 봉사자가 동화읽기 프로그램 소개.

이상과 같이 각 지역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시민들의 욕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위한 영어도서관 개설 및 프로그램 소개 활동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점차 관련된 사업이 확대 운영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각종 언론의 보도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

3.3 학원가 등 각종 사교육 시장 영역의 최근 경향과 추세

#1. 강남에 ‘립서리키즈’ 시설 속속 들어서: 영어도서관 도입(매일경제 081208일자)

- 서울 강남지역 어린이 전용시설 키즈O은 유명 탤런트 부부가 운영.
- 어린이 전용 놀이교육시설로서, 미술, 미용, 체육교육 등, 각종 모임이나 생일파티 공간까지 갖춤(한곳에서 공부하고 놀며, 운동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주요시설로 함께 운영됨.

#2. 학원 ‘자기주도 학습’, 학교는 ‘학원 따라하기’(머니투데이 090402일자)

- 사교육업체들의 자기주도학습 도입 추진 (영어독서교실 움직임 보도기사), 주입식 암기교육과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대표되는 기존 학원식 교육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 공교육은 과거 학원식 교육을 방과후 학교에 도입 현상을 소개.

#3. 살림 빠듯해도 영어학원은 더 보냈다 (중앙일보 090228일자)

- 초, 중, 고교생 영어 사교육비 지난해 12% 늘어... “물입교육 등 영향으로 관심 확대.”
- 영어가 사교육의 3분의 1: 지난 한 해 초, 중, 고교생의 전체 사교육비(20조9095억) 중 영어 비중은 32.7%(6조8513억)로 조사됨. 과목별 월 평균 사교육비는 영어가 7만 6천원으로 1위로, 수학보다 평균 1만 4천 원 많다.

#4. 대규모 어학원 강좌소개 광고

- 대규모 학원의 강좌 소개 방문 내용.
- “영어근력을 강하게 키워야 미래의 꿈이 가벼워집니다”라는 학원 모토에 따라 기초 근력 강화를 위해 학원내 영어도서관을 설치하여 꾸준한 독서를 통해 실력 배양토록 함. 주제중심의 지문을 읽고 분석한 후 발표 및 요약문 쓰기, 스토리를 읽고 요약한 후 연극 및 뉴스 리포트 활동 진행, 파닉스와 이에 기초한 스토리 읽기 및 말하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함. 방학특강으로 소설 다독 유도.

#5. 영국아이들은 ‘해리포터’를 읽기 전 ‘바나나’를 읽는다: 영어책 판매 광고 (중앙 090812 일자 전면광고)

- 광고기사로 영어에 대한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어동화가 활용되기 시작하고 ‘스토리북’ 시장이 생겨나면서 읽기자료 판매가 급증함을 반영함.
- 바나나 스토리북: 세계적인 아동 전문 출판사인 영국 에그몬트사에서 펴낸 ‘순수창작동화’시리즈로 전 54종으로 구성되는데 신간이 계속 추가됨.

#6. 모 방송국 교육문화센터 정기강좌 회원모집: 영어독서지도자 양성 과정 모집 광고

- 방송국 교육문화센터에서 정기강좌로 독서지도자과정 개설.
- 성인특별강좌 ‘영어독서지도자’ 양성 과정으로서, 6개월 수료 후 수료증 수여하는데 최근 이 분야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 것임.

#7. “영어의 책 바다에 풍덩”을 여름 해외 캠프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해외영어 독서캠프 소개 기사(동아 090512 일자)

- 독서프로그램 중심의 어학원 활동 소개로 필리핀 4주(비용은 300만원), 호주 4주(비용은 600만원) 과정을 소개함.

#8. 누구나 이용 ‘영어도서관’ 운영: 학원식 영어도서관 기사(머니투데이 090423)

- 세계 3대 출판사 중 1곳인 미국 스칼라스틱 영어도서관이 구비, 레벨에 따라 소설/비

소설 구분(도서이해력 향상에 도움). 학원 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함.

- 월회비 1만원, 1주일에 4권 대여하며, 횡수 무제한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학원에서 작은도서관을 지역사회에 소개.

#9. '영어동화책 방문대여': 독서기반 영어 학습 광고(동아일보 090423, 090707, 090715 일자 전면광고)

- 미국식 독서 학습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개발한 영어 독서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함.
- 월 8권(원어민 녹음 자료 포함) 읽기 자료 소개. 영업 방식은 방문 학습지 방식으로 진행. 월 28,000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소개함.

#10. 온라인 영어학습 프로그램 "리딩○○": 독서기반 영어학습 광고(중앙 090617 일자 전면광고)

- 선정 장서 독파: 초등부터 중학생 수준까지 총 1,221권의 우량 도서 독서지도 프로그램.
- 책 한권을 읽은 후 온라인 학습과정을 진행하도록 함(책 내용에 대한 이해도 테스트, 요약문장 순서대로 정렬하기 테스트, 서평 및 보고서 쓰기 등을 실시함. 지명도 있는 학원인 A학원 등이 현재 사용 중에 있다고 함.

#11. 영어학습지 회사 광고(중앙일보 전면광고 090112 일자)

- 영어 동화책 읽기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광고.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통해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하고 쓰기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소개.
- 독서를 통해(풍부한 어휘와 문장에 노출되므로) 영어의 노출량을 늘려주는 것과 동시에 듣기를 습관화시켜주어 영어실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소개.

#12. 지방소재 영어도서관 소개: 대구 지역에서도 학원식 북클럽 활동 중(다음 카페)

- 약 10,000권의 영어책 보유, 대구 지방에서 유일한 영어도서관.
- 학생 수준별 다양한 책 선별, 매주 어린이 영어 스토리텔링 진행 중인데, 영어 책 읽어주기와 독서클럽을 운영.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교육시장에서는 영어독서지도 방식을 순발력 있게 도입, 영어독서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여 각 지역별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영어독서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영어독서지도사를 배출하는 사교육업체 등의 사업 규모와 종류가 점차 증가하고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다.

4. 자율독서프로그램과 그 적용

3장의 국내 영어독서 및 도서관 관련 사례에서 소개된 다양한 영어독서방법은 대체로 자기

주도 학습이론(배영주 2005; 송인섭 2007)을 바탕으로 한 독서이론을 가정 및 학원, 도서관 등에서 적용하여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독서방식이 보다 과학적으로 독서프로그램화하여 연구 개발된 것이 자율독서프로그램(SSR)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자율, 자발적 독서', '스스로 골라 읽기', '지속적으로 조용히 읽기(묵독)', '소리내지 않고 읽기', '강렬하게(집중해서) 읽기' 등으로 그 명칭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 명칭이 무엇이던지 간에, 그 기본 아이디어는 동일한 것으로 "학생들이 오랜기간을 통해,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책을 읽는 능력을 각각 함양시키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Leuer 2000).

자율독서프로그램은 1950, 60년대 보급된 보고서(평가서)를 사용하는 자기선택독서와 개인화된 독서 프로그램과는 다른 '자율, 자발적 독서' 형식이다. 이 방식은 영어책 독서를 할 때 효과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읽기에 대한 일반적 전제는 학생들이 많이 읽음으로서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영어원어민과 영어를 제 2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읽기에 투자된 시간의 양이 학생들의 읽기 이해도와 어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또한 자율독서프로그램 경험 이후, 읽기에 대한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개발시키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이 읽을 자료를 본인 스스로 고르게 하고(자율성), 6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장기간 지속하게 될 때(지속성) 그 효과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음이 밝혀졌다(Chow 2000).

자율독서프로그램은 원래 McCracken이 개

발한 6가지 가이드라인에 근거(McCracken 1971)한 것인데, 이는 ①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한 책을 조용히 읽어 나가고 ② 사서 등 안내자도 동시에 읽는 모습을 보여주어 모델을 제시해준다, ③ 학생들이 책자, 잡지, 신문을 선택하여(정해진) 전체시간 동안 읽는다, ④ 미리 정해진 대로, 방해받지 않는 기간을 타이머로 정해 놓는다, ⑤ 보고서나 어떤 과제(기록)를 강요하지 않는다, ⑥ 전체 학급, 학교가 참가해서 시행한다 등을 바탕으로 읽기프로그램의 효과를 최대한 달성키 위해 자율독서프로그램의 8가지 요소를 개발(Pilgreen 2000)한 것으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응용하여 소개할 수 있겠다.

전세계적으로 오랜기간을 거쳐 검증된 결과로 정리된 각 요소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하는 도서관의 독서지도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각기 다른 현장에서 적절한 응용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국내의 영어독서에 관심 있는 가정, 지방자체단체 및 학원가에서 각각 형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도입, 시행해 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요소별 핵심내용을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맞도록 분석·정리하여 현장에 맞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 기본 장서 확보하기

성공적인 독서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된 장서의 제공이다. 장서제공이란 시판용도서, 잡지, 만화, 신문 기타 각종 읽을 자료를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학생들이 집에서 읽을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공공도서관이나 학교에 대량의 장서를 준비한다. 구입하였거나 공공도서관에서 집단대출되어 한꺼번에 2-3 주 동안 프로그램 운영도서관에서 보관하여 이용토록 하고, 장서확보가 안된 곳에서는 최대한의 활용을 위하여, 자주 읽는 자료는 체계적으로 상호대차하거나 학생들 간에 부지런히 돌려 읽도록 한다.

그룹별로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북클럽을 통해 단체 할인된 가격으로 도서구입을 할 수도 있다. 또 초등학교에서 단체로 어린이가 대출카드를 만들도록 한 후 공공도서관에 현장방문토록 유도할 수도 있다. 장서가 불충분한 학급문고나 공공도서관에서는 상호대차제도를 이용토록 한다. 성공적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력할 것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미리 준비된 대량의 장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2 관심유도를 위한 확보된 자료 내용 소개

성공적인 프로그램 이행에 필요한 시간의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로서 다양한 읽기자료를 효과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모든 독자들이 스스로 좋아하고 골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읽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자료에 접근토록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학생들을 진정으로 유인하기 위해 아주 폭넓은 자료를 구성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딱딱하고 전통적인 자료 대신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서적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책을 소개한다. 모든 학생층에 맞는 매력적인 도서는 나이, 관심사, 독서수준 등을 고려해서 장서구성이 되어야 한다.

도서 이외에 다른 자료가 서가에 소개되기도 하는데, 잡지, 신문, 팜플릿, 만화책 등 전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료가 제공되기도 한다. 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관련된 책들이 자유로이 이용되고, 친화력을 갖기 위해 딱딱한 장정본을 부드러운 종이 겉장 책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에 포함된 도서에 유인하기 위해서 책의 진열 방법도 좀 더 매력 있게 하고 새로운 자료의 구입이나 배열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전시공간에 화려한 색상의 도서와 도서 회전대를 갖추고, 북자켓을 게시판에 붙여 책광고를 하도록 한다.

읽기에 대한 학생의 열정을 형성해주는 것은 책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다. 경우에 따라 읽기프로그램에 추가될 자료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자료가 특별기금으로 조성된 것이면,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 개인별로 책을 소유하게 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장서소지를 유도할 수도 있다. 학교 현장에서라면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급 게시판을 이용하여 서평, 포스터, 만화 등 다른 이용자들도 흥미 있는 도서를 소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4.3 읽기몰입 환경제공

읽기 좋은 자료를 발견할 때마다 주위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읽기 편하고 조용한 장소로 가

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동안 성공적인 읽기 프로그램에서의 분석을 통해 보면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 그리고 집과 같이 편한 환경이 갖추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도서관이나 교실에서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했다. 공공도서관에서도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열람 공간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거나 토론은 억제되고 심지어 책을 읽을 때 소음이나 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때 학교숙제는 엄격히 금지되고 오히려 즐기기를 위한 독서만 허락하여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과 의견 교환하는 것을 권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독자들이 때로는 자기 친구들 또래와 상호 어울릴 때 보다 편리함을 느끼게 되는데, 책을 읽고나서 친구들과 비공식적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서) 부담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금 사정 등으로 특별한 설비를 갖추기가 어려울 경우에, 조용하고 비공식적인 현장제공 정도만 되어도 일시적으로 좋은 책에 빠지게끔 해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4.4 읽기진작을 위한 격려

읽기몰입 환경제공을 위해, 흥미있는 장서로 학생을 노출시키는 것이 곧바로 이들에게 흥미 유발을 시키는 것이라는 확증은 없다. 독서가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즉각적으로 반응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경험을 인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읽기에 대한 격려가 없으면, 내키지 않는 독자는 재미있게 읽는 친구들이 이미 경험하는 것들을 결코 경험해 볼 수 없을 것이다.

성공한 프로그램에서는 읽기를 위한 격려를

위하여 독서를 나눠보고 토론하는데 담당사서 등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책을 읽은 후 특정시간을 통해 읽은 책에 대해 이들과 토론을 갖는 것이었다. 또 다른 경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읽은 후 사서가 낭독해주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읽은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독후활동은 여러 형태로 상호간 듣기, 말하기, 쓰기 행위 등을 포함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다 더 많이 읽기 위한 욕망을 상호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른 격려의 방식으로 어른들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서, 교사 등 교육현장에 있는 어른들이 읽기는 재미있을 뿐더러 가치있는 것이라는 것을 호소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읽는 것이 학교 교재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관념을 제거토록 하는 것이다. 어른들이 독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와서 보고, 그들 스스로 독서 노력의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사서는 학생이 가까운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자료를 구할 수 없을 때, 도서관이용교육을 통하여 다른 곳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도록 추천도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습관적 행위로 갖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예가 제시되었는데, 사서, 교사, 친구, 학부모의 지원과 관심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된다. 이때 외교, 특목고, 명문대 등 영어공부 모범생들의 '영어 읽기 성공 사례'를 소개한 신문이나 잡지 기사 등도 학생들을 리더(Reader)로 키워 나가도록하는 환경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5 담당사서 훈련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면 자율독서프로그램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보다 명백하게 한 '담당자훈련'에 강조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수동적이기 보다 능동적인 활동으로서, 도서관이나 북클럽에서 단순히 책을 읽을 조용한 시간을 제공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도서관에서는 담당자훈련을 성공적 프로그램에 일관성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

독서지도 담당자가 학생들을 책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돕는 '적극적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개발, 수행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작성 유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독서지도자가 학생과 책을 연결시켜주는 전략을 갖게 하고 '자율독서'의 개념을 참여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사서 등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냥 뒤에 서서 우리 학생들이 책 읽기가 좋은 것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대신에, 충분한 철학과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재미를 갖게 될 읽기 자료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을 훈련과정을 통해 익히도록 격려해야 한다.

4.6 평가 혹은 확인하지 않기

자율독서방식을 위한 가이드라인 중 하나는 책 읽기와 관련된 어떤 기록이나 리포트를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평가받기 위한 것을 강조치 말고, 순전히 자유롭게 읽도록 하는 것이다. 산출물을 만드는 일이나 추가적인 어학 공

부와 관련된 요구를 전혀 하지 않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 리포트나 쓰기 과제를 생략해서, 어린이가 즐겁게 읽도록 하거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어 읽기를 강조하기 위해 교과서종류는 일부러 배제시키기도 한다.

어떤 종류의 기록이나 리포트 작성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이런 행위가 학교 과제같은면 읽기의 즐거운 면을 강조치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읽기자료, 책 제목, 읽은 페이지 수를 적지 않도록 하고, 담당자는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측정을 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학생이 충분한 재미를 갖지 못할 때에는 책을 바꿔, 새 책을 선택하도록 권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기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끝내는 책임이나 읽은 내용의 특정 부분을 꼭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든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것이다. 가장 즐겁게 독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서와 관련된 어떤 '의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4.7 독후활동소개

독후활동은 읽은 책에 대하여 흥분상태를 지속시키도록 학생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창조적이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이들의 열정을 전달하는 활동이다. 어린이들은 천성적으로 사교적이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그들의 열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 물론 이것도 측정 평가되는 요소가 포함 되어서는 안 되며 자연스럽게 열정을 표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연을 바탕으로 한 활동으로 음악, 미술 혹은 과학적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어떤 그룹

은 미술작업이나 글쓰기뿐만 아니라 롤 플레이(역할연기)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독후 활동의 근원은 항상 읽은 이야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이야기 주제를 끌어내서 써보기도 하고, 그룹 별로 장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연기자 같이 실연도 해보고 무언극을 해볼 수도 있다.

어떤 학생들은 받아쓰기를 하기도 하고, 안내자가 새로 책을 읽어줄 수도 있다. 또 입으로 조용히 읽기, 인형극 등을 학생들이 읽은 것을 바탕으로 생겨난 아이디어를 활용하기도 한다. 또 단순히 읽은 자료에 대해 학생들끼리 토론하도록 할 수도 있고, 책 내용의 주요 사건들을 그려보게 할 수도 있다. 독후활동의 종류는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독후활동 시에도 유의할 점은 절대로 학생들에게 평가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후활동을 통해 독서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하려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4.8 읽을 시간 제공

자율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할 때에는 학생들이 읽을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자주 시행했나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보통 15분에서 30분 사이의 읽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성공한 프로그램에서는, 1주일에 적어도 두 번 정도 자율 독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데 몰아서 몇 번씩 집중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서 독서하기보다, 나누어서 자주 읽는 방식이 효과적인 것이다.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시간을 주어 읽도록 하여, 향후 독자적인 리더(reader)로서 발전시키는 것

이 핵심요소인 것이다. 학생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독서 습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독서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매일 15분 정도씩을 할애하여 각 도서관이나 학교 및 가정에서 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장기간에 걸쳐 연구되고 검증된 방식을 바탕으로 위의 8가지 요소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갖게 한다. 제시된 각 요소는 부분적으로 가감하여 각 현장의 실정에 따라 어린이들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적용사례와 깊이를 보일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 정리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현장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소개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에서 활동하는 독서 프로그램 혹은 북클럽 운영자들이 각각의 환경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갈 때 효과적이며 성공적인 현장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독서와 영어도서관 확산 현상에 따라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관련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계가 주축이 되어 각종 사례소개 및 관련분야 활동 평가의 주축이 되어야 대내외적으로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도서관 사업에 대한 각종 후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도서관과 이를 주관하는 전문가로서 사서의 고급적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상 많은 미래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중심적 시각에서 전통적이며 검증된 독서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영어도서관 운영을 위한 이론적 배경과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의 영어도서관 개설 요구에도 효과가 탁월한 마케팅 도구로서 공공 및 학교,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보기를 기대한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케팅 활동은 이용자인 고객에게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업의 활동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야 하듯이, 재정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홍보를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계는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능한 인재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인재들이 도서관계에 입문할 의욕을 자극할 만한 새로운 가치를 제안해야 할 것이다.

“영어도서관 마켓”은 마케팅활동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고객), 지원자(투자자), 유능한 인재 모두에게 새롭고, 훌륭한 가치를 제공하여 호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환경이 바뀌면 상황에 맞

게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되어야 도서관도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마케팅은 고객이 원할 때, 즉 고객이 도움을 청하고 관심을 보이면 즉각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한다. “상황에 맞게 옷을 맞춰 입을 줄 아는 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관련연구(도서관경영, 서비스마케팅, 장서개발, 이용자연구, 정보조직, 멀티미디어 독서도구개발, 독서지도 등)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소개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어도서관 운영 현상과 관련하여 시장에서의 요구상황을, 사회의 의견을 종합적이며 객관적으로 담게 되는 신문 기사를 통해 취합·분석하고,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 기관들의 움직임, 기대 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로 이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시장과 기대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국내 도서관 발전의 새로운 도약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분야별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장서개발과 관련 프로그램 발굴 등이 도서관 현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소개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송지은. 2009. 『엄마표 영어학교』. 서울: 아이트리.
 셰리 리. 2009. 『영어몰입교육 어떻게 준비할까?: 앞서가는 엄마들의 몰입교육 완벽 대비법』. 서울: 삼호미디어.

오경묵, 노영진. 2003. 공공도서관 전자정보실의 정보서비스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3): 262-274.

- 윤찬희. 2007. 『책 잘읽는 아이가 영어도 잘한다』. 서울: 리더스북.
- 이명신. 2008. 『엄마와 함께 하루 20분 영어그림 책의 힘』. 서울: 조선일보 생활미디어.
- 이보영. 2008. 『이보영 영어명작수업, 08: Jack and the Beanstalk』. 서울: 삼성출판사.
- 이소연. 2004. 『도서관의 서비스 기획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수원: 기전문화대학.
- 이신애. 2008.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공부법』. 서울: 랜덤하우스.
- 이 현. 2005. 『기적의 도서관 학습법』. 서울: 화니북스.
- Chow, Ping-Ha & Chou, Chi-Ting. 2000. "Evaluating sustained silent reading in reading classes." *The Internet TESL Journal*, 6(No.11).
- Fox, Mem. 2008. *Reading magic: why reading aloud to our children will change their lives forever*. Orlando: Houghton Mifflin Harcourt.
- Higgins, Susan. 2007. *Youth service & public libraries*. Oxford: Chandos House. 114.
- Kotler, Philip. 2003. *Marketing insights from A to Z*. New York: John Wiley.
- Leuer, Marilyn. "Sustained Silent Reading." [online]. [cited 2009.10.2].
- McCracken, R. 1971. "Initiating sustained silent reading." *Journal of Reading*, 14 (8): 521-24.
- Pilgreen, Janice. 2000. *The SSR Handbook: How to organize and manage a sustained silent reading program*. Portsmouth: Boynton/Cook.
- Sass, Rivkah. 2002. "Marketing the worth of your library." *Library Journal*, 127(11).
- Siess, Judith. 2003. *The visible librarian: asserting your value with marketing and advocacy*. Chicago: ALA.
- Toffler, Alvin & Heidi Toffler. 2006. *Revolutionary Wealth*. New York: Knopf. 32-40.

